논어 11편 선진 24장 · 원문·풀이

子路使子羔爲費宰。子曰：「賊夫人之子。」子路曰：「有民人焉，有社稷焉；何必讀書，然後爲學？」子曰：「是故惡夫佞者。」

독음 · 자로사자고위비재 자왈 적부인지자 자로왈 유민인언 유사직언 하필독서 연후위학 자왈 시고오부녕자

쉬운 풀이(요약) · 배움이 부족한 자고에게 벼슬을 맡기려는 자로를 꾸짖었다. 실무도 배움이라는 말로 준비 부족을 덮지 말라는 뜻이다.

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

글자 뜻과 음(대표 훈음 ·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

子 아들 자 / 路 길 로 로 / 使 하여금 사 사 / 羔 새끼양 고 고

爲 할 위 / 費 쓸 비 비 / 宰 주관할 재 재 / 曰 가로 왈

賊 도적 적 적 / 夫 지아비 부 부 / 人 사람 인 / 之 갈 지

有 있을 유 / 民 백성 민 민 / 焉 어찌 언 언 / 社 토지의 신 사 사

稷 기장 직 직 / 何 어찌 하 하 / 必 반드시 필 필 / 讀 읽을 독 독

書 쓸 서 서 / 然 불사를 연 연 / 後 뒤 후 후 / 學 배울 학

是 이 시 시 / 故 옛 고 고 / 惡 나쁠 악 악 / 佞 재주 녕 녕

者 놈 자

저본: 위키문헌 論語 ·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